



즉시 배포용: 2019년 7월 1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농장 노동자 법(FARM WORKERS BILL)에 서명**

*집단 교섭권, 초과 근무 수당, 장애 및 유급 육아 휴직(Paid Family Leave), 실업 보장 등을 보장하여 농장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주거 및 근무 조건 보장*

**Cuomo 주지사: "이 법안은 인도적 조건에 대한 효과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성과일 뿐 아니라, 또한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농장 노동자 법(Farm Workers Bill)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농장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주거 및 근무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농장 근로자 공정 노동 행위 법(Farm Laborers Fair Labor Practices Act)을 제정합니다. 이 법안에 따라, 농장 노동자들은 초과 근무 수당, 주 1회 휴무, 장애 및 유급 육아 휴직(Paid Family Leave), 실업 보장을 비롯한 기타 노동권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은 2020년 1월 1일에 발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인도적 조건에 대한 효과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성과일 뿐 아니라, 또한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100,000 명의 공장 노동자 및 그 가족들이 더욱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다른 노동자들이 80년이 넘도록 누려온 것과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강력하고 실제적인 성과는 Trump 대통령 시기에 그 중요성이 한층 돋보입니다.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노동권을 약화시키고 노조를 공격하며 소외계층을 존중하지 않고, 무엇보다 미국의 믿음을 하나로 묶고 빛나게 하기보다는 나누고 조종하려 했습니다."

**상원 다수당 Andrea Stewart-Cousins 원내총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장 근로자 공정 노동행위 법(Farm Laborers Fair Labor Practices Act)은 뉴욕주 전역에서 농업 산업을 더욱 강력하고 공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서명된 이 법안은 농장 노동자를 위해 일어서서 이들이 다른 뉴욕의 노동자들이 누려왔던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저는 이 법안을 지지하며 청문회를 열고 농장 노동자와 농업계의 우선순위 및 우려를 좀 더 나은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뉴욕주 전역의 농장을 방문한 Jessica Ramos 뉴욕주 상원의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Carl Heastie** 하원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하원 다수당은 농장 노동자를 불공정 노동 관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투쟁해왔습니다. 농장 노동자들은 신체적으로 고될 뿐 아니라 많은 경우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여 우리의 농업 부문을 발전시키고 우리 모두에게 농산물을 제공했습니다. 열심히 노동한 이 노동자들은 뉴욕주 농장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뉴욕주 전역의 다른 산업 노동자들이 누리고 있는 같은 노동권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노동자들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고 누릴 자격이 있는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법안을 후원하고 추진한 **Cathy Nolan** 뉴욕주 하원의원과 **Marcos Crespo** 노동 위원장을 비롯한 하원 다수당 동료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의 독특한 특성을 가진 산업으로 인정한 농장 근로자 공정 노동 행위 법(**Farm Laborers Fair Labor Practices Act**)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농장 노동자들의 집단 교섭권 인정.
- 농장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 최소 주 1회, 24시간 연속으로 휴무 제공 의무화.
- 농장 노동자의 주당 60시간 근무.
- 일반 수당의 1.5배에 해당하는 초과 근무 수당 의무화.
- 농장 노동자에게도 실업 보험법 적용 및 조건비달 근로자(H-2A)에 대한 농장 비용 절감.
- 거주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농장 노동자 주택에 위생 규제 적용 보장.
- 노동자 보상 보험을 받기 위해 농장 노동자에게 필수적으로 적용되었던 임금 제한 제거.
- 농장 노동자도 장애 및 유급 육아 휴직(Paid Family Leave) 혜택 수령 가능.
- 농장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의 상해 보고 의무화.

**Jessica Ramos**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농장 노동자를 수십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뉴욕주 농업의 근간이라고 인정했으며, 그들의 노동이 가지는 존귀한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한 가운데, 우리는 마침내 농장 노동자들에게 주 1회의 휴무와 초과 근무 수당, 집단 교섭권을 보장하고, 이들을 노동법(Labor Law)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로 인정했습니다."

**Catherine Nola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하원 다수당은 노동권 법안을 통과시킨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농장 노동자 공정 노동 행위 법(**Farm Laborers Fair Labor Practices Act**)의 통과와 함께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수년간 이 법안을 추진한 것이 매우 자랑스롭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법안이 제정되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Heastie** 의장, 저의 동료인 **Ramos** 상원의원, 수년 간 지지를 표명해주신 모든 상원의원들, **Andrew Cuomo** 주지사, **RFK** 인권 센터(**RFK Center for Human Rights**), 히스패닉

연방(Hispanic Federation), 미국 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y Union, ACLU), 지방 및 이민부 연합(Rural & Migrant Ministries Coalition), 뉴욕주 교사 연합(New York State United Teachers, NYSUT), 도소매 백화점 조합(Retail, Wholesale, Department Store Union, RWDSU), 미국노동총연맹(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the Industrial Organization, AFL-CIO)을 비롯해, 지지와 성원, 아낌없는 노력을 보내주신 수많은 개인과 지역사회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한 Denis Hughes, Ed Donnelly, Alan Lubin, Rich Winston, Richard Witt 목사, Geri Reilly와 함께 저에게 이 문제에 대해 알려주신 전직 주지사인 Mario Cuomo와 Olga Mendez 뉴욕주 상원의원의 존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안은 위대한 뉴욕주의 농장 노동자와 그 가족, 그리고 농장 노동자들이 마주한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투쟁한 모두를 위한 커다란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들의 노력은 바로 오늘 실현되었습니다."

**Marcos A. Cresp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십 년 간의 지지 끝에 우리는 뉴욕주의 근면한 농장 노동자들을 위해 비로소 오랫동안 늦춰졌던 권리와 보호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농장이 번영하는 것은 우리 뉴욕주의 경제와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이 번영은 다수가 이민자인 농장 노동자들이 언제나 존경과 적정 임금, 적절한 안전 보호를 받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저는 Cuomo 주지사, Heastie 의장, Nolan 하원의원을 비롯해 정의가 구현되기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은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뉴욕 시민자유연맹(NYCLU)의 Donna Lieberman 상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안 서명에 따라, 농장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부정했던 인종차별주의자 Jim Crow 시대의 법으로 인해 초래된 80년간의 부정의를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농장 노동자들은 너무 오랫동안 위험한 환경과 착취에 시달려왔습니다. 뉴욕 시민자유연맹(NYCLU)은 오늘 주지사 및 의원들과 함께 농장 노동자들이 조직 결성과 휴무, 초과 근무 수당을 비롯한 기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는 특히 이민자인 농장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시점에 실시되었습니다. Trump 대통령이 잔혹함이라는 그의 어젠다를 추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가운데, 우리 뉴욕주는 모든 뉴욕 주민이 존중과 존엄, 권리를 보장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주 미국노동총연맹(AFL-CIO)의 Mario Cilento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노동자의 가족은 모두 하나입니다. 십 년에 걸친 투쟁 끝에, 농장에서 고되고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근면한 노동자 수만 명의 삶이 주지사의 서명을 통해 개선될 것입니다. 농장 노동자들은 마침내 노조를 결성하고 의무 휴일을 누리며 초과 근무 수당을 신청할 기본 노동권을 가집니다. 저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 역사적인 법안을 제정해주신 Cuomo 주지사를 비롯해,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 법안을 지지해주신 Cathy Nolan 하원의원과 Jessica Ramos 상원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이 법안이 데일리 뉴스(Daily News)에서 서명되었다는 것은 매우 적절합니다. 데일리 뉴스는 뉴욕 농장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폭로하는 사설을 지속적으로 실어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수 년에 걸쳐 정의를 위해 투쟁해 온 수많은 농장 노동자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그레이터 뉴욕 노동-종교 연합(Greater New York Labor-Religion Coalition)의 상임이사인 Michael Feinberg**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법안에 서명하여, Cuomo 주지사는 다시 한 번 노동권에 대한 그의 헌신을 증명했습니다. 농장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환경은 많은 경우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며, 너무 오랫동안 경시되어 왔습니다. 농장 노동자들은 이제 휴식 없는 초과 근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노동 환경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종교계와 노동계, 특히 농장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지지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히스패닉 연방(Hispanic Federation)의 상임이사 겸 회장인 Frankie Mirand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스패닉 연방(Hispanic Federation)은 농장 노동자 공정 노동 행위 법(Farm Laborers Fair Labor Practices Act)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이 법에 따라, 한 세기 동안 지속되며 우리 뉴욕주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누려온 기본 노동 보호권을 뉴욕의 농장 노동자들이 받을 수 없도록 부당하게 배제한 정책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갔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히스패닉 연방(Hispanic Federation)은 뉴욕주 전역의 농장 노동자 권리를 계속 지지할 것입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뉴욕주 노동 커미셔너로 근무했던, 전국 근로계약법 프로젝트(National Employment Law Project)의 Patricia Smith** 선임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장 근로자는 뉴욕의 대규모 농업 산업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본적인 노동 보호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농장 근로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헌신해주신 Cuomo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지방 및 노동부(Rural & Migrant Ministry)의 상임이사인 Richard Witt**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농장 노동자에 대한 Andrew Cuomo 주지사의 흔들림 없는 헌신이 농장 근로자 법(Farm Workers Bill) 서명으로 다시 한 번 증명되었습니다. 주지사는 근면한 노동자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을 뿐 아니라, 농업 노동자들이 최고 수준의 보호 및 뉴욕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 중요한 법안을 통해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뉴욕 근로자 정의 센터(Worker Justice Center of New York)의 Andrea Callan** 매니징 디렉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장 노동자 공정 노동 행위 법(Farmworkers Fair Labor Practices Act)에 서명하여, Cuomo 주지사는 전국 최상위 농업 수준을 자랑하는 뉴욕주에서 수천 명의 농장 노동자들이 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주지사는 지금이 차별의 역사에 뿌리 박고 있는 잘못된 노동 관행을 바로 잡고, 과거 전혀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농장 노동자들에게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 농장 노동자들을 위한 주지사의 끊임 없는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전직 낙농업 농장 근로자이자 에르난데스 대 뉴욕주(Hernandez vs. State of New York) 재판의 원고이며, 센트럴 뉴욕 근로자 센터(Workers' Center of Central New York)의 설립자인 **Crispin Hernandez**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농장 노동자의 단결권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를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주 우리 곁을 떠난 서비스 노동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이자 국제 조합(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SEIU) 로컬 32BJ(Local 32BJ)의 회장인 Hector Figueroa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센트럴 뉴욕 근로자 센터(Workers' Center for Central New York)는 수 년 간 우리 뉴욕주의 농장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농장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현재 우리의 결심은 2013년 저와 제 동료가 동료들과 노조를 조직하여 우리의 권리에 대해 교육했다는 이유로 농장에서 해고당했을 때와 같습니다. 우리는 소송을 제기했고, 판결 내용은 노조 결성에 대한 보복으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뉴욕주 법에서 농장 노동자를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보호 조치는 농장 근로자 공정 노동 행위 법(Farm Worker Fair Labor Practices Act)을 통해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단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우리의 고용주들에게 노조를 조직할 우리의 권리를 존중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